

kiri Weekly

2014.5.7 제282호

이슈

FY2013 손해보험산업 동향과 시사점

포커스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보험회사 치매보험상품

글로벌 이슈

과거 금융위기 발생 배경과 대응의 시사점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도전과 성장기회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FY2013¹⁾ 손해보험산업 동향과 시사점

최 원 선임연구원

요약

-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FY2013 들어 명목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등의 고성장에 힘입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FY2013에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함.
 -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과거와 같은 높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FY2013 종목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고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저성장을 나타냈으며,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세계개편안에 대한 기저효과로 장기 저축성보험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여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5.6%로 둔화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증가로 0.4%의 저성장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둔화로 화재, 해상, 보증보험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특종보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어 전체 1.5% 증가에 그침.
 -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의 400만 원 상향조정 효과가 약화되어 3.1% 증가에 그쳤으며, 퇴직연금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수요 소진 이후 신규수요 창출이 어려워 12.1% 감소함.
- FY2013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 및 당기순이익과 관련한 특징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최근 몇 년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다른 종목들도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1) FY2013은 회계연도 개편으로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으며, 제시된 FY2013 수치는 2013년 4~12월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누적 수치와 비교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증가세 둔화와 높은 손해율 지속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나, 자동차 보험료가 서민 경제와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인상에 어려움이 있어 논란이 됨.
- 수익성 측면에서도 원수보험료 증가세 둔화와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등으로 부진한 당기순이익 실적을 나타냄.

■ 앞서 언급된 FY2013 손해보험산업과 관련한 특징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음.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과 함께 손해보험회사들이 처하고 있는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위험 대비 경영체제가 필요함.
-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운영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영업 부문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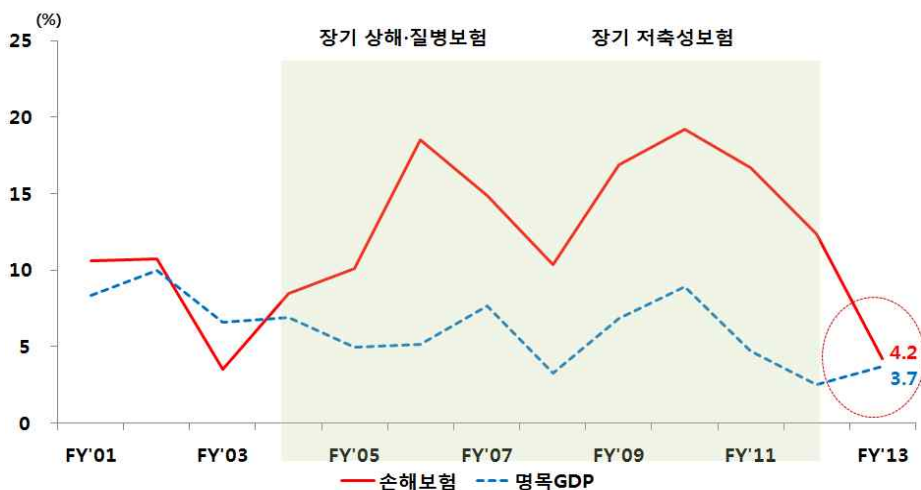
1. 검토배경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FY2004부터 FY2012까지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FY2013(4월~12월) 들어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냄.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기 상해·질병보험이 손해보험 고성장을 이끌었고, 이와 같은 고성장 흐름은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등으로 이어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FY20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명목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하락함.
- 이와 같은 원수보험료 증가율 하락은 세계개편과 개인연금 제도변화에 의한 기저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저효과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원수보험료가 과거와 같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과 명목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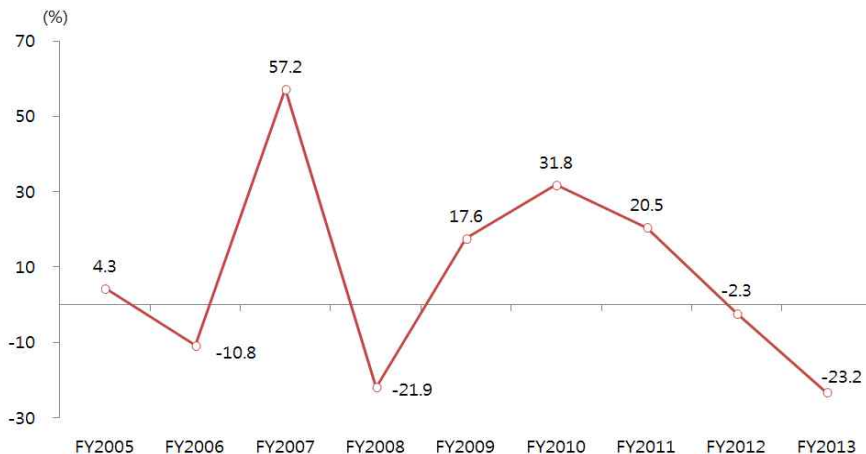


주: 2013년 명목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속보치를 사용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도 보험료 수입 증가세 둔화와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당기순이익은 FY2012에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FY2013에는 23.2% 줄어듦.
- 자동차보험 경영실적 악화로 보험영업이익 적자폭이 확대되고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투자영업이익 증가세도 둔화됨.

〈그림 2〉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감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에 본고는 FY2013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 및 당기순이익과 관련한 특징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FY2013 손해보험산업 동향



가. 원수보험료

- FY2013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²⁾는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되고 대부분 종목들도 모두 저성장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4.2% 증가에 그친 53조 7,582억 원을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5.6%로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 축소가 포함된 2012년 8월 세계개편안³⁾에 대한 기저효과로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증가로 0.4%의 저성장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둔화로 화재, 해상, 보증보험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특종보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어 전체 1.5% 증가에 그침.
 -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의 400만 원 상향조정 효과가 약화되어 3.1% 증가에 그쳤으나, 퇴직연금은 실적 개선에 힘입어 9.8% 증가함.
- FY201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일시납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5.6% 증가에 그친 31조 5,47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두 자릿수의 고성장 흐름이 한 자릿수로 둔화됨.
 - 비중이 큰 장기 저축성보험⁴⁾의 경우 FY2012에는 2012년 8월 발표된 세계개편안의 영향으로 고성장을 나타냈으나 FY2013에는 이와 같은 세계개편안의 기저효과 등으로 4.3% 감소함.

2) 손해보험은 크게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그리고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2012년 8월 발표된 세계개편안에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동 개편안 발표 이후 제도 변경 이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였음.
 4) FY2013 기준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8.3%이며, 장기 상해보험과 장기 질병보험이 각각 25.7%와 19.4%를 차지함.

-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으로 늘어났던 신규가입 계약⁵⁾의 계속보험료가 꾸준히 유입됨에 따라 16.1% 증가함.
 - 단, 초회보험료의 경우 FY2013 장기 질병보험 초회보험료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장기 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감소세를 기록하여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냄.
- FY2013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2013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친 저성장을 지속함.
 - 경기둔화로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였던 자동차 등록대수의 경우 2013년 들어서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름.
 - 대당보험료의 경우 사고자 특별 할증률 인하, 주행거리 연동특약 및 블랙박스 할인특약 확대 등 할인형 상품 확대로 감소함.
- FY2013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 해상, 보증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특종보험의 증가세 둔화로 1.5%의 저성장을 기록함.
 - 화재보험은 의무가입 수요 확대⁶⁾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 종합보험과 장기 재물보험으로 수요가 분산되고 건설경기 침체도 계속되어 2.9% 감소함.
 - 해상보험의 경우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전체 10.7% 감소함.
 -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하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 저성장과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증가세 둔화로 4.8% 감소함.
 - 특종보험의 경우 경기둔화 등으로 기술보험과 상해보험이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어 2.4% 증가에 그친 저성장을 나타냄.

5)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FY2012에는 제도개선이 반영되기 이전의 상품에 가입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한 바 있음.

6) 2013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2013년 8월 22일까지 해당 법률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주들의 가입을 완료하도록 규정함.

■ FY2013 개인연금⁷⁾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에 그쳤으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가 9.8% 증가하여 전체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6.3% 증가함.

- 2011년부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FY2011과 FY2012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크게 늘어났으나, 이와 같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조정 효과가 줄어들면서 FY2013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3.1% 증가에 그침.
- 퇴직연금의 경우 대기업들의 퇴직연금 전환이 마무리⁸⁾되어 도입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을 통하여 신규가입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나 그 동안 지속된 저성장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실적 개선 등으로 9.8% 증가함.

〈표 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 ¹⁾	2012년 12월 말	FY2013 ²⁾
손해보험 전체	보험료	438,323	522,444	609,648	685,422	515,854	537,582
	증가율	16.9	19.2	16.7	12.4	14.9	4.2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232,988	281,813	341,432	401,896	298,782	315,478
	증가율	23.4	21.0	21.2	17.7	22.0	5.6
자동차보험	보험료	112,224	124,133	130,415	128,416	97,040	97,435
	증가율	2.6	10.6	5.1	-1.5	-0.9	0.4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58,470	62,901	70,901	80,773	60,792	61,679
	증가율	8.7	7.6	12.7	13.9	14.1	1.5
연금부문 ³⁾	보험료	34,641	53,598	66,900	74,337	59,240	62,991
	증가율	50.7	54.7	24.8	11.1	12.2	6.3

주: 1)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됨.

2)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3) 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당기순이익

■ FY2013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4,919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등으로 23.2% 감소함.

7) 손해보험회사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을 판매하고 있음.

8)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5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86.5%로 추정되었으며, 대기업들의 퇴직연금 전환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임.

-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경과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보험료 적립금, 순사업비, 발생손해액 등이 늘어나 1조 5,777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에 비하여 적자규모가 확대됨.
-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이자수익 증가와 외화환산손실 감소 등으로 3조 7,518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5.0%에 그치면서 둔화됨.

〈표 2〉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및 증가율

(단위: 억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 ²⁾	2012년 12월 말	FY2013 ³⁾
당기순이익	금 액	15,413	20,314	24,469	23,915	19,453	14,919
	증가율	17.6	31.8	20.5	-2.3	-6.5	-23.2
보험영업이익	금 액	-9,365	-9,879	-5,685	-15,515	-9,335	-15,777
	증가율 ³⁾	10.3	5.5	-42.5	172.9	1,414.6	69.0
투자영업이익	금 액	31,413	37,345	40,569	47,869	35,741	37,518
	증가율	19.4	18.9	8.6	18.0	20.1	5.0

주: 1)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됨.

2)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3) 마이너스 수치 사이의 증가율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FY2013 손해보험산업의 주요 특징



■ 최근 몇 년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다른 종목들도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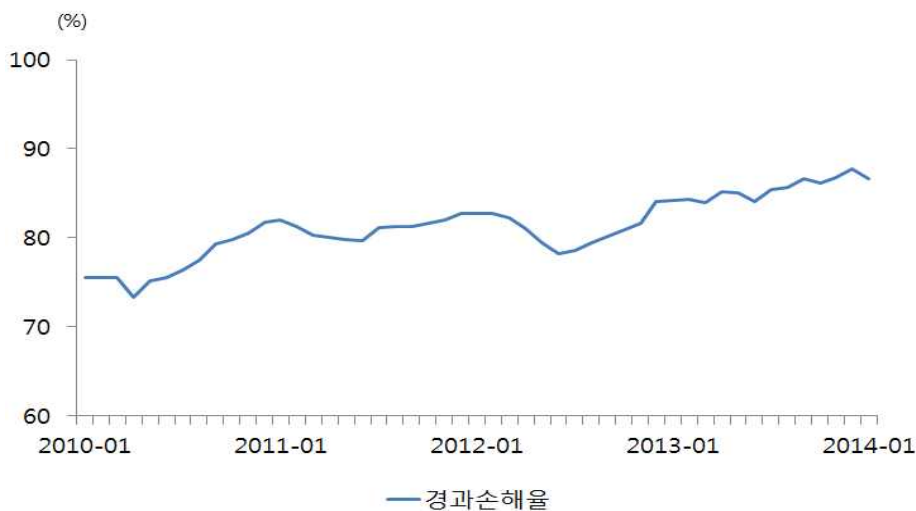
-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금리 지속으로 시중금리 대비 상대적인 높은 금리를 나타내고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각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0%를 넘는 고성장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유사한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 축소를 포함한 2013년 8월 세계개편안의 기저효과로 장기 저축성보험 신규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음.
- 개인연금도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이른바 세제적격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되면서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최근 이와 같은 세제혜택에 대한 효과가 약화되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둔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FY2012에는 -1.5%, FY2013에는 0.4%에 그치고 있으며, 일반손해보험도 FY2013 1.5%의 저성장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고 높은 수준의 손해율이 지속되어 실적이 악화되었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서민 경제와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인상에 어려움이 있어 논란이 되었음.

-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자기부담 정률제 도입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증가에 따른 대당보험료 감소로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85%를 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높은 손해율로 지속으로 2013년 자동차보험산업 적자규모는 약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는 전체 손해보험산업 경영성과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최근 손해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경영성과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3〉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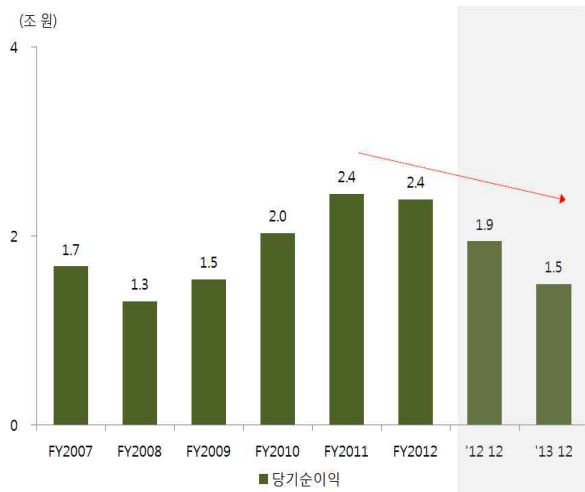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통계포털서비스.

- 당기순이익 흑자 규모가 FY2011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보험영업 부문 누적적자 규모는 이미 FY2012 전체 4분기 누적적자 규모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에 따른 보험영업이익 적자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FY2012 -2.3%, FY2013 -23.2%를 기록하여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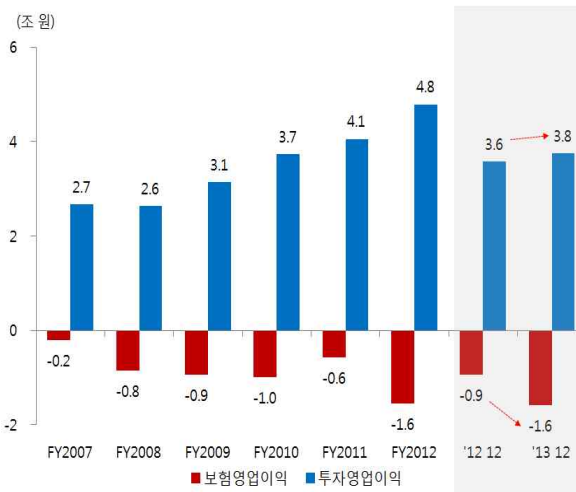
- FY2012 전체 보험영업이익 적자규모가 1조 5,515억 원인데 반해,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3분기 누적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이미 1조 5,777억 원을 나타냄.

〈그림 4〉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주: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5〉 손해보험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주: 농협손해보험 실적이 포함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시사점

- 향후 손해보험산업의 원수보험료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과 함께 손해보험회사들이 처하고 있는 원수보험료 성장성 둔화와 경영실적 악화 등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위험 대비 경영체제가 요구됨.

- 신규 수익원 창출이 요구되는데,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을 기반으로 진출 시장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직접적인 해외시장 진입 또는 M&A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상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하여 저축성보험 쏠림현상으로 인한 장기적인 위험을 줄여 나가야 하며, 다양한 위험 보장 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 상품에 대한 효율, 손해율, 사업비 등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고령층을 위한 위험 보장서비스 제공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상품 제공 등으로 손해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계약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손해율 개선,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RBC 비율 관리 등에 대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손해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데에는 자동차보험 저성장과 경영실적 악화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며, 소비자 이해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운영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여론과 자동차보험을 민영보험으로 바라보는 자동차보험제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해결방안의 하나로 의무 가입이 필요한 책임담보의 경우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기타담보는 자유화의 폭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는 이원적 운영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⁹⁾
- 보험영업 부문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됨.
 - 투자이익의 경우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안정적인 보험영업이익 확보가 필요함.
 - 특히, 보험영업 부문 적자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자산운용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리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kiri**

9) 기승도·김혜란(2013),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정책세미나.